

부모와 교사가 함께하는



상호 존중 소통방법



부모와 교사는 아이와 관련된 소통을 자주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소통할 때 민감한 주제를 다루거나 말하려는 의도를 왜곡되지 않게 제대로 전달하기가 어렵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부모-교사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우리 아이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주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서로가 조심스러워 하고 있음을 이해해 보세요



선생님/ 부모님도 나를
조심스러워 하시는구나



부모는 자신이 하는 말이 교사를 불편하게 할까 봐 조심스러워하고, 교사는 전달하는 내용이 오해될까 봐 조심스러워합니다. 서로 조심스러워하면서 대화하는 것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주세요



갑자기 이야기를 꺼내면
선생님/ 부모님께서 갑작스
러우실 수 있겠다



부모와 교사는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는 하지만 부족한 면을 가진 평범한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당혹스럽거나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으실 것이다'는 전제를 두고 대화를 해야 듣는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고 상대방이 하는 말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의도를 읽어보세요



내가 선생님/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말씀드리는게 좋을까?



아이로 인해 만난 관계라고 하더라도 상호존중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같은 인격적 사람임을 전제해야 서로에게 결례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교사 간의 대화는 불편한 얘기를 하게 될수록 서로의 입장을 강조하는 언어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읽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의 생각을 멈추고 상대방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를 자주 쳐주세요



그러셨겠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교사와 부모는 자신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함께 심각하게 여겨주고, 불편할 수 있겠다는 공감을 해 줄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공감적 경청은 상대의 말에 인정하는 반응(맞장구치기)에서 출발합니다.

말 뒤에 호칭을 자주 붙여주세요



네, 선생님/ 00어머님 /
00이 아버님



말 뒤에 호칭을 자주 붙이면 존중과 책임이 있다는 느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보다는 '네 선생님'이, '00어머니'보다는 '00이 어머님'으로 호칭을 부르는 것이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언어표현을 사용해주세요



아이를 더욱 잘 성장시키고자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하고자 하는 말의 의도가 더 잘 드러납니다. 따라서 대화 중에 감정적 소진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가능한 긍정적인 언어표현을 사용하여 말의 내용과 말하는 이의 의도를 잘 전달해야 합니다.